북악의 내일을 만듭니다

국민대신문

제954호
2018년 11월 12일 월요일

소융대·경상대·창의공과대 학생회 상반기 중앙감사 영수증 분실 및 누락 논란

우리학교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가 지난달 16일(화) 각 단과대의 학생회, 졸업준비위원회, 동아리연합회, 기록물관리위원회 총 17곳을 감사한 결과를 '청춘'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했다. 하지만 이중 경상대학과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창의공과대학의 감사 결과가 큰 논란을 일으켰다.

논란이 된 내용은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의 분실 영수증 2개(5만3500원)와 누락 영수증 10개(358만6450원), 총 363만9950원 △경상대학의 분실 영수증 2개(5만3700원)와 누락 영수증 9개(457만830원), 총 462만4530원 △창의공과대학의 분실 영수증 5개(121만5800원), 총 121만5800원이었다. 세 단과대학 학생회는 소명 자료를 통해 감사 결과에 대해 해명했으나 학생들은 학생회에 대한 실망감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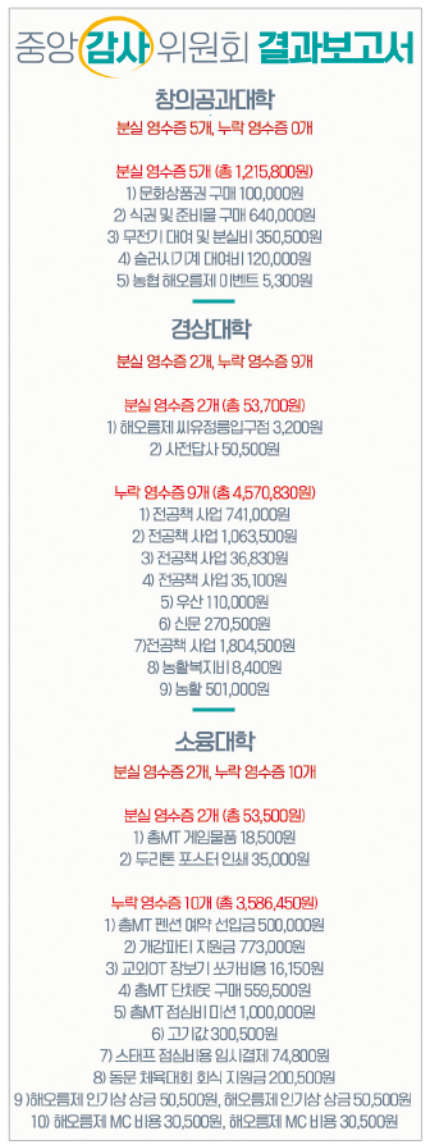
우선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회는 영수증 누락의 사유를 중감위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고 말했다. 총무부장 최현인(소프트웨어융합대학·17)씨는 "소명과 관련해 감사위원과의 통화를 통해 구두로 전달을 했고, 감사위원 측에서도 알겠다는 응답을 받았다"며 "추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 소명이 완료된 줄 알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소명 자료에서도 카드관리 미흡으로 인한 잦은 이체수수료, 계좌이체나 현금 지급 후 영수증 미처리의 문제 등이 추가로 지적됐다. 먼저 잦은 이체수수료에 대해 최현인 씨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수수료 외에도 카드 관리 미흡으로 인해 잦은 수수료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학우 분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과실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는 사비로 변상했다"고 답했다. 영수증 미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수령증이나 영수증 처리를 했어야 했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다. 하지만 사적으로 돈을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학우분들께 불신을 드려 죄송하다. 다음 하반기 감사 때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답했다.

경상대학 학생회는 '영수증 내역을 찾아 첨부하는데 시간이 지연돼 감사결과에 누락 영수증으로 표기됐다'고 소명 자료에 게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학생회의 영수증과 회계 관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주별 결산과 월말 결산을 확실히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또한 큰 금액이 들어가는 '전공서적 공동구매' 사업을 진행하면서 증빙자료를 확실하게 준비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경상대학 학생회장은 지난달 31일(수) 본지와의 인터뷰에 응한다고 했지만,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창의공과대학 학생회는 '중감위의 감사에서 계좌이체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을 모르겠다고 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줄 알았다'고 소명 자료를 게시했다. 또 추가 게시물을 통해 이번 중앙감사위원회와 각 단과대 학생회의 소통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소명자료에 대해 감사결과가 발표 나기 이전에 미리 확인하지 않은 점과 영수증 처리가 가능한 사안(문화상품권 구매건)에 대해서도 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은 점등을 지적했다. 창의공과대학 학생회장은 지난 11월 1일(목)에 본지와의 인터뷰에 응한다고 했지만,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한편 이번 상반기 감사결과 발표에는 논란이 된 세 단과대 외에도 △체육대학의 분실 영수증 1개(1700원), 총 1700원 △건축대학의 누락 영수증 1개(3500원), 총 3500원 △조형대학의 분실 영수증 4개(3만4천원), 총 3만4천원의 결과가 보고됐으며, 중감위는 이번 감사와 관련된 본지와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중앙감사위원회 결과보고서

창의공과대학

분실 영수증 5개, 누락 영수증 0개

분실 영수증 5개 (총 1,215,800원)
1) 문화상품권 구매 100,000원
2) 식권 및 준비물 구매 640,000원
3) 무전기 대여 및 분실비 350,500원
4) 슬러시기계 대여비 120,000원
5) 농협 해오름제 이벤트 5,300원

경상대학

분실 영수증 2개, 누락 영수증 9개

분실 영수증 2개 (총 53,700원)
1) 해오름제 씨유정릉입구점 3,200원
2) 사전답사 50,500원

누락 영수증 9개 (총 4,570,830원)
1) 전공책 사업 741,000원
2) 전공책 사업 1,063,500원
3) 전공책 사업 36,830원
4) 전공책 사업 35,100원
5) 우산 110,000원
6) 신문 270,500원
7)전공책 사업 1,804,500원
8) 농활복지비 8,400원
9) 농활 501,000원

소융대학

분실 영수증 2개, 누락 영수증 10개

분실 영수증 2개 (총 53,500원)
1) 총MT 게임물품 18,500원
2) 두근콘 포스터 인쇄 35,000원

누락 영수증 10개 (총 3,586,450원)
1) 총MT 펜션 예약 선입금 500,000원
2) 개강파티 지원금 773,000원
3) 교외OT 장보기 쏘카비용 16,150원
4) 총MT 단체옷 구매 559,500원
5) 총MT 점심비 미션 1,000,000원
6) 고기값 300,500원
7) 스태프 점심비용 임시결제 74,800원
8) 동문 체육대회 회식 지원금 200,500원
9)해오름제 인기상 상금 50,500원, 해오름제 인기상 상금 50,500원
10) 해오름제 MC 비용 30,500원, 해오름제 MC 비용 30,500원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감사 결과이다.

박영민 기자

건축학부, 지역환경 개선 프로젝트에 나서다

▲건축학부 '가로새로'팀이 제작한 조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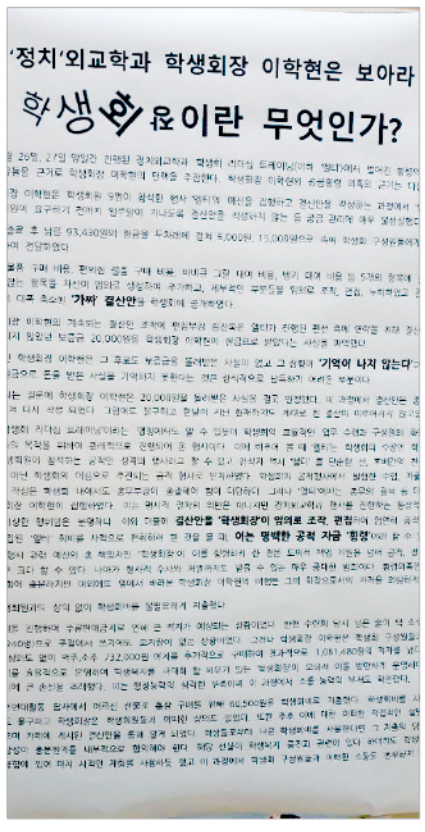
우리학교 건축학부 학생들이 성북구 정릉동 고가도로 하부에 조형물을 설치했다. 지난달 23일(화) '2018 서울 미술관 대학 협력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치된 조형물은 아크릴에 형형색색의 필름을 붙인 형태로 일정한 크기의 얇은 아크릴에 틈을 내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우리학교 '가로새로'팀의 김성진(건축·12)씨는 "평소 사람들에게 어둡고 무거운 인식을 주어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겼던 고가도로 하부 계단에 무형의 색과 빛으로 고정된 인식을 새롭게 바꾸자는 의도에서 시작했다"며 조형물을 만들게 된 계기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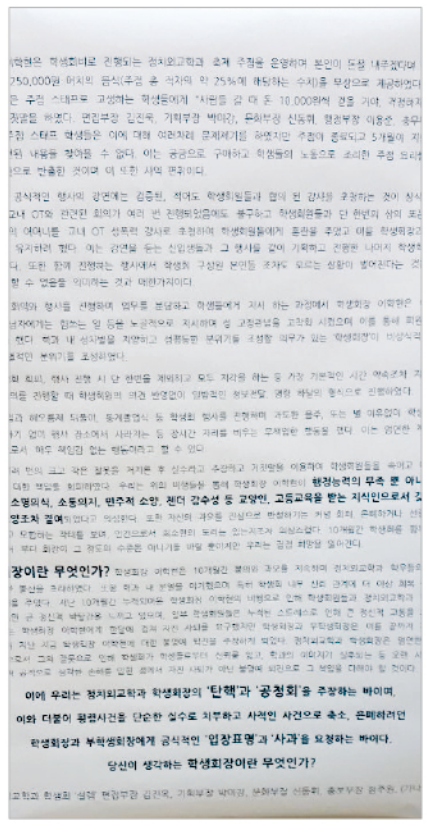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이 프로젝트는 미술·건축학과 대학생들이 주제 기획부터 전시장소 선정, 홍보까지 직접 주도해 공공미술을 통해 지역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박윤정 수습기자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 논란 속 사퇴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 이학현은 보아라

학생회비 사용이란 무엇인가?


장이란 무엇인가?

이에 우리는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의 '탄핵'과 '공청회'을 주장하는 바이며,
이와 더불어 평평사건을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고 사적인 사건으로 축소, 은폐하려던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에게 공식적인 '입장표명'과 '사과'을 요청하는 바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학생회장이란 무엇인가?

개강 후 교내에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 이학현은 보아라-학생회장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다. 대자보는 정치외교학과 이학현(정치외교·15)학생회장의 비리와 부정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공금횡령 △직권남용 △소통부재 △회장직의 불성실한 수행 △성차별적 분위기 조성 등이 언급되어 있었다. 이 대자보가 붙은 후 약 한 달이 지난 10월 1일(월) 이학현 학생회장은 전격 사퇴했고, 같은 날 사건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됐다.

정치외교학과 학생회는 "빠른 시일 내 회장직 부재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치외교학과 학생 A씨는 "우리가 직접 선출한 학생회장이 물의를 빚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우 기자

글인지대, 대학연계 시민대학 교양강좌 마쳐

▲지난 7일(수) 북악관 910호에서 시민대학 교양강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우리학교 글로벌인문·지역대학(이하 '글인지대')이 오는 28일(수) '2018 대학연계 시민대학'을 마친다. '대학연계 시민대학'은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과 서울시민의 평생교육 확대를 위해 서울시가 주관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학교는 올해 3월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문·예술·디자인 교양강좌를 운영해왔다.

이번 강의를 주관한 이인규(영어영문)교수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강의라 학생 대상 강의와 성격이 달라 힘들었지만 진지하게 듣는 시민들을 보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연주 수습기자